



제21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에서 김치명인으로 선정된 박혜란씨가 '김치명인 콘테스트'에서 자신이 만든 김치를 소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올해의 김치 명인에 박혜란 씨

<복분자 효소 수삼 백보쌈 김치>

광주김치문화축제 콘테스트

문체부장관상 군산 최상심 씨

올해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김치명인에 '복분자 효소 수삼 백보쌈 김치'를 선보인 박혜란(여·52·광주시 남구·사진)씨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7일 "최근 중외공인 김치마스터 파블리온에서 열린 '김치명인 콘테스트'에서 전국 김치 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광주 출신의 박혜란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남도 파김치를 선보인 최상심(여·51·전북 군산시 나운동)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황철단호박 백김치를 만든 윤경미(여·47·광주시 남구 봉산동)씨가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해마다 경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참가자들이 전통 김치만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맛을 찾아 내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김치명인'은 전국 음식콘테스트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국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음식

대회다. 김치축제가 배출하는 김치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가 본선에 앞서 배추김치를 담가 일정 기간 숙성시킨 후 본선 심사 때 이를 평가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치명인에게 김치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며, 축제 기간 김치담그기 체험과 시연, 김치명인식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해외축제 등에도 참가해 광주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로 뻗는 광주 김치...5개국에 100만달러 상당 수출

광주 명품 김치사업단

일본 등 6개 업체와 계약

광주김치가 100만달러(200톤)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는 등 본격적인 해외 수출길을 연다.

광주시는 7일 "광주명품김치사업단(단장 김광호) 내 6개 업체가 제21회 세계김치문화축제와 연계한 김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김치CEO 초

청 행사'에서 일본, 대만, 베트남, 호주, 중국 5개국 6개 업체와 100만달러(200톤) 상당의 광주김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은 특히 일반 김치와 고가의 프리미엄급 김치를 동시에 계약하면서 광주김치의 브랜드 가치가 해외에서도 급상승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행사는 광주김치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제21회 세계김치문화축제와 연계해 마련됐으며, 해외 업체 대표들은

지난 4일 열린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개막식에 참가해 김치명인콘테스트를 참관하고 광주김치타운 가공시설과 세계김치연구소 등을 방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계약이 광주김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부재료를 이용한 수제 김치를 특화해 '가장 광주다운 김치가 가장 세계적인 김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출범...21~81세까지 각계각층 참가

DJ센터서 창립 총회

위원 514명 위촉장 수여

광주시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광주공동체시민회의'가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500여 시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총회는 경과보고 및 운영방향 소개, 시장 및 시민회의장 인사말,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분과별 주제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514명의 시민위원들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위원 모두가 시민을 섬기는 시장의 입장에서 시정 현안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81세 최고령자, 21세 최연소자, 장애인, 여성, 청년, 전문가 등 각계각층 7명의 위원이 각 분과를 대표해 위촉장을 받았다. 이어 각 분과별로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주제로 원탁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제안된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25일부터 9월5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분과별 위원은 ▲문화·관광·체육 105명 ▲인권·복지 104명 ▲여성·청(소)년 75명 ▲도시·건설·교통 98명 ▲환경·녹지 45명 ▲경제·투자 45명 ▲자치·기획 42명 등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해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도시공사-MK병원 임대주택 무료 진료 협약

연간 2회 내과·한방 등

광주도시공사가 뜻있는 지역 병원들과 함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웃들의 무료 건강 검진을 챙기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왼쪽에서 세 번째)는 7일 사람 중심의 넉넉하고 따뜻한 나눔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MK한방병원(대표원장 주혜정·네번째)과 임대주택 무료 진료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민선 6기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사람 중심의 넉넉하고 따뜻한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누가의원, SKJ병원, 서울한방병원 등과 건강 검진협약을 체결해 영구임대아파트 3개소에 무료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MK한방병원은 기존 영구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



한 것으로, 내년부터 연간 2회 이상 내과 검진, 한방 진료 등 각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은 "어려운 이웃의 건강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준 MK한방병원에게 감사의

드린다"면서 "앞으로 그동안 체결된 병원과 함께 체계적인 진료를 실시해 많은 임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미래산업추진위' 참여위원 22일까지 모집

문화관광·생명 등 6개 분야

지역산업 정책 토론회·심의 활동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미래산업추진위원회'가 이달 말 발족을 목표로 참여위원 모집에 나선다.

광주시는 7일 "경제 분야를 비롯한 주요 시정에 지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민선 6기 시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산업 전반에 산·학·연 거버넌스 도입을 위한 '미래산업추진위원회'를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위원 모

집 등의 직업에 착수했다.

시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공고문을 내고 '미래산업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모집에 나섰다.

참여자격은 산업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본인 희망은 물론 타인 추천도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오는 22일 까지도다.

시는 또 각 분야별로 신규 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분과별 인사를 관련 실·국 추천을 통해 10인 이내로 선발·확정하고 10월 말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

다. 전체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자동차 ▲장수 ▲광전자융합 ▲문화관광 ▲농·생명 ▲강소(에너지, 디자인 등) 6개 분과를 구성해 수시 모임 및 토론회를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래산업추진위원회는 민선 6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향후 지역 산업 정책 수립 등에 관한 토론회와 심의가 이뤄지는 중요한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시민의 적극적인 응모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